

■ 주요 뉴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

- 트럼프, 친중 성향을 근거로 인텔 CEO에 사임 요구
- 인도,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
- 트럼프-푸틴 회담 임박, 러우전쟁 휴전 기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8%],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 기업의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폭 확대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주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을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물 수요 둔화를 반영
독일은 미국의 금리 상승 등이 영향

※ 뉴욕 1M NDF 증가 1386.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8.9원, 0.05% 하락). 한국 CDS 포함

		8/8일	8/7일	전일대비			8/8일	8/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89.5	6,340.0	+0.78%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5%	+3bp
	유럽	547.08	546.05	+0.19%		독일	2.69%	2.63%	+6bp
	중국	3,635.1	3,639.7	-0.12%		영국	4.60%	4.55%	+5bp
	일본	41,820	41,059	+1.85%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210.0	3,227.7	-0.55%		중국	45bp	45bp	+0bp
환율	달러지수	98.27	98.07	-0.14%	위험 지표	EMBI+	-	349	-
	유로화	1.1641	1.1666	-0.21%		VIX	15.15	16.57	-6.99%
	엔화	147.47	147.14	-0.41%		WTI유	63.88	63.88	+0.00%
	위안화	7.1802	7.1814	+0.02%	원자재	구리	447.2	439.9	+1.66%
	원화	1,389.6	1,381.2	-0.60%		금	3,397.8	3,396.4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

-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둔화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 연준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나타난 뒤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
-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은 양호한 수준이나, 상반기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한 가운데 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
- 한편, JPMorgan과 Goldman Sachs 등은 최근의 고용시장 약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준 이사 지명 등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 CME의 Fed Watch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89.4%로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트럼프, 친중 성향을 근거로 인텔 CEO에 사임 요구

- 트럼프는 인텔의 Lip-Bu Tan CEO가 중국 공산당에 연루되어 있으며,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발언. 이에 Tan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언급

■ 일본은행,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금융 대응 필요

- BOJ의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미국의 관세 영향 평가에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유사시 신속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다만 일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 일본 Daiwa 증권 등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

■ 미국 연준 의장 후보군 10여명으로 확대

-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제임스 블라드 前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마크 서머린 前 백악관 경제 자문 등이 새롭게 포함. 베센트 재무장관이 후보군을 좁힌 뒤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 현임 파월 의장의 임기는 '26.5월 종료

■ 인도,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

-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36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정찰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단하였으며 국방장관의 워싱턴 방문 계획도 취소. 모디 총리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50%의 관세율을 적용한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국 이익을 지키겠다고 발언
- 한편, 미국의 고율관세 우려로 인도 루피화 가치가 5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인도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에 개입하면서 인도 외환보유고가 90억달러 이상 감소. Axis는 향후 미국이 對인도 관세를 다시 낮추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금괴에 대한 관세 면제를 재확인

- 백악관은 조만간 금괴와 관련 특수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방침. 앞서 미국이 주요 금 수출국인 스위스에 39%의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국경보호국이 금괴 관세를 언급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 이에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이 금괴 관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해 왔음

■ 트럼프-푸틴 회담 임박, 러우전쟁 휴전 기대

-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것이라면서 일정과 장소를 곧 공개하겠다고 발언.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휴전을 기대한다면서 일부 영토를 돌려받는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 한편,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협정을 발표. 또한 미국이 두 나라와 에너지, 무역,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

■ 트럼프, 국세청장 해임. 베센트 재무장관이 임시 대행 겸직

-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 룡 국세청장을 취임 2개월 만에 해임. 후임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임시 대행을 맡을 계획

주요 경제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8/11~1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8/12일),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8/15일)
- 유로존 2분기 GDP(8/14일), 중국 7월 소비, 투자 등(8/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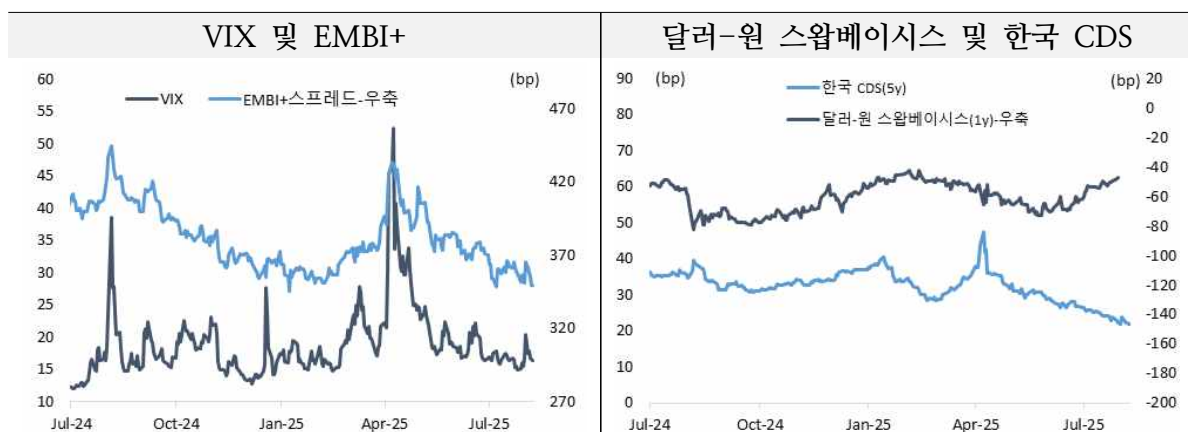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